‘최단기 1000승’ 김영관 조교사, 경마역사 새로 쓰다

한국경마 역사상 최단기 1000승의 대기록을 세운 김영관 조교사(왼쪽)가 2009년 11월 화려한 기록을 남기고 물러난 ‘루나’의 은퇴식에 참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성희 ‘루나’마주.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다음 목표는 세계경마대회 첫 우승”

- 김영관 조교사

23일 ‘삼정어게인’ 1000번째 우승 선사
신우철 조교사 첫 기록보다 14년 앞당겨
순위 상금만 111억원 한국경마 새 역사

‘경마계의 명장’ 김영관(57) 조교사가 데뷔 14년 만에 한국경마 최단기 1000승의 신기록을 달성했다. 6월 23일 1경주에 출전한 ‘엑톤블레이드’의 우승으로 999승을 기록한 그는 8경주에서 ‘삼정어게인’의 우승으로 역사적인 1000번째 우승을 기록했다. 6월25일에는 ‘보너스II’의 우승으로 통산 2000승을 향한 새로운 출발을 했다.

경마는 기수보다 말의 능력에 따라 승부가 갈린다며 흔히 ‘마칠기삼(馬七騎三)’이라고 한다. 경주마를 육성하고, 어떤 말에 어느 기수를 태울지 등 전술을 짜는 게 모두 조교사의 몫이다.

조교사는 말과 기수를 선수로 부리는 ‘경마 감독’이다. 한국에선 경마를 도박으로 바라보지만 영국,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는 프로 스포츠로 여기고 감독 격인 조교사의 역할의 중요성도 다안다. 경마 전문가들은 “김연아 선수 덕분에 전 국민이 피겨스케이팅을 알았듯 김영관 조교사야말로 전 세계 경마 시행국가에 한국 경마를 알릴 최적의 인물”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영관 조교사는 전남 무안에서 태어났다. 검정고시로 고교를 졸업한 뒤 1976년부터 서울 뚝섬경마장에서 기수로 활동했다. 문제는 체중. 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0kg을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

1980년에 기수를 그만두고 식당을 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 기수 시절에 알고 지내던 조교사의 권유로 1986년에 마필관리사로 경마에 복귀했다. 이후 17년간 뚝섬과 과천경마장에서 말과 함께 잠을 자며 말의 습성을 익혔다.

2003년 조교사 면허를 획득한 뒤 한창 개장을 준비하던 레츠런파크 부산경남에서 2004년 조교사로 데뷔했다.

그의 앞에는 경주마를 소유한 마주들이 줄을 서 있다. 보통 경주마를 소유한 마주들에게 조교사들이 위탁을 부탁하지만 김영관 조교사는 반대다. “내 말을 받아 훈련시켜서 경주에 출전시켜 달라”는 마주들이 그를 모셔가기 위해 경쟁을 벌일 정도다. 김 조교사가 워낙 많은 승리를 이끌어내다 보니 생긴 일이다. 물론 아무나 받지 않는다. 마주를 고른다는 뜻이 아니다. 말의 관상을 본다. ‘루나’가 그랬다. 태어나면서부터 인대염으로 두 뒷다리를 저는 말이었다. “비록 다리를 절었지만 얼굴이 작고 눈이 초롱초롱했다. 심폐기능이 뛰어난 말의 특징인 넓은 어깨를 지녀서 다리가 불편하다는 결점을 충분히 커버할 것 같았다”고 기억했다.

루나는 지금까지 역대 최저가로 기록된 970만원에 낙찰됐다. 김 조교사는 다리를 수술하는 대신 훈련방법을 달리했다. 허리를 강하게 하는 방식으로 스피드를 올린 뒤 경주에 투입했다. 루나는 2005년 경남도지사배를 시작으로 2008년 오너스컵 등 큰 대회를 석권하면서 2009년 11월 은퇴할 때까지 7억5700만원의 상금을 벌었다. 몸값의 78배다. 루나를 소재로 차태현 주연의 영화 ‘챔프’가 만들어졌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누구를 기수로 태울까 생각할 때 마주가 간섭하면 “말 도로 가져가라”고 쏘아버릴 만큼 권위를 얻게 됐다. 14년간 그가 관상을 보고 선택한 경주마들이 벌어들인 순위상금만 111억원이다. 덕분에 국내 최다 연승마 배출(미스터파크 2007년 3월 7일~2012년 6월 3일), 조교사 부문 첫 시즌 100승 달성(2013년 104승·2015년 108승·2016년 116승), 9년 연속 다승왕(2008~2016), 국내 첫 통합 3관마 배출(2016년 파워블레이드) 등의 기록도 세웠다. 2017년에는 두바이월드컵 결승에 나간 ‘트리플나인’을 배출하는 등 한국경마의 굵직한 기록들을 교체해왔다.

이제 김영관 조교사는 한국 경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한국마사회가 공식적인 자료수집 이후 집계된 조교사 부문(서러브렛) 통산 1000승은 서울의 신우철 조교사에 이어 두 번째다. 신우철 조교사가 1000승을 달성하기까지는 28년의 기간이 필요했다. 김영관 조교사는 이 기록을 14년이나 앞당기며 데뷔 14년 만에 1000승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다.

이제 김영관 조교사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고 했다. “세계 최고의 명마들이 출전하는 큰 국제대회에는 한국 경주마가 출전권을 받는 것조차 힘들다. 올해 처음으로 세계 4대 경마대회인 두바이 월드컵에 세 마리를 출전시켜 ‘트리플나인’이 결승전에 출전했고 ‘파워블레이드’는 두바이 현지 경마팬들 사이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로 뽑혔다. 분명히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드시 한국산 경주마로 세계최고의 대회를 우승하는 첫 번째 조교사가 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말 바보’ 박태종 기수, 다시 안장 오른다

작년 9월 낙마사고로 무릎수술만 세 번째
고된 재활치료 마치고 7월 첫째주 복귀전

50대 중반의 나이지만 여전히 현역 기수를 고집하는 박태종이 부상 이후 다시 경주로에서 후배들과 경쟁하기 위해 재활에 열중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2016년 9월 경주 도중 낙마사고로 또 다시 무릎 수술을 받았던 ‘경마 대통령’ 박태종 기수가 부상을 극복하고 7월 첫째 주에 경주로로 돌아온다.

이미 무릎 인대 수술만 세 번째라,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기수 생활을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전설의 자키는 불굴의 의지로 하루 5~6시간의 재활치료를 거쳐 10개월 만에 복귀에 성공했다.

기수생활을 하는 동안 잦은 부상으로 공백이 있었던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긴 시간동안 부상으로 활동을 중단한 것은 처음이다. 복귀 소감을 묻자 박태종 기수의 목소리에선 걱정과 설렘이 교차했다. 긴 공백 기간의 부담감과 좋아하는 말을 다시 탈 수 있다는 기대가 함께 온 탓이었다. 무엇보다 자신을 믿고 기다려준 경마팬들에게 다시 좋은 경주를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다. 어느덧 50대 중반. 조기 퇴직이 일상화된 이 시대에 기수로서도 사회적으로도 은퇴 연령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모습에서 ‘밀퇴 세대’들은 커다란 위안을 받을 것 같다.

박태종 기수에게 2016년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동시에 찾아왔다.

2016년 6월 데뷔 30년 만에 개인통산 2000승을 달성하며 한국경마의 역사를 새로 썼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9월에 경주 중 낙마하며 힘든 재활치료의 시기를 견뎌야 했다.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 말을 타고 달리고 싶다”는 타고난 기수에게 부상은 아픔보다 더 큰 절망이었다. 처음엔 재활치료로 극복하려고 했지만, 부상이 심해 결국 12월26일 재수술을 받았다.

회복에는 최소 10개월에서 1년이 걸릴 거라는 의사의 말을 보란 듯이 뒤집었다. 수술 후 6개월만에 다시 경주로로 돌아온 것.

다시 말과 함께 뛰고 싶다는 박태종 기수의 열정이 이뤄낸 결과다.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새벽조교와 운동을 빼먹은 적이 없을 정도로 근면 성실했다. 그저 좋아서 한 일이었다. 가끔 하는 취미생활도 하체 단련을 위해 등산과 골프를 선택했다. 골프장에서 남들은 카트를 타고 이동할 때 자신은 걷거나 뛰었다. 하체 운동에 도움이 돼 기승자세가 좋아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말(馬)만 아는 바보’ 박태종 기수의 이런 모습은 많은 후배들에게 귀감이자, 한국경마의 새로운 역사로 기록되고 있다.

베테랑이지만 이현종 기수 등 어린 후배들의 기승자세도 꼼꼼히 챙겨보며 여전히 공부한다는 그의 열정은 7월 컴백 경주에서 어떻게 나타날까. 김종건 기자

모바일로 10만원 베팅하면 110만원 드려요

렛츠런 서울 ‘110만원 리턴’ 매주 추첨

렛츠런파크 서울이 야간경마 기간을 맞이해 경마 팬들에게 색다른 이벤트를 선보인다. 선선한 여름 밤 날씨를 즐길 수 있게 매주 토요일 마지막 5개 경주에 1만원 이상 베팅하는 고객에게는 금액 별로 최대 10만원을 추첨해 제공한다. 매주 토요일마다 260명의 고객에게 총 550만원을 지급하며, 기간 중 5000만원을 지급하는 행운이 가득한 이벤트이다. 모바일세대를 위한 혜택도 있다. 서울에서 시행하는 전체 경주에 10만원씩 베팅한 고객에게는 매주 추첨을 통하여 110만원을 증정하는 ‘110만원 리턴 이벤트’를 한다. 총 8주간 8명에게 88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 특성상 경마 팬들의 호응이 클 것으로 본다.

특정 공간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는 감사 경품을 준다. 회원실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꿈으로 내에서 판매하는 지자체 농특산품을 제공한다. 월 회원과 일일 회원을 차등해 지급한다.

야간경마 기간 중 금요일과 토요일은 낮 12시부터 고객입장이 가능하다. 오후 9시에 출발하는 마지막 경주까지 즐길 수 있다. 노을경마가 시행되는 일요일 입장시간은 오전 10시, 마지막 경주는 7시에 출발한다. 김종건 기자

렛츠런파크 부경, 7월 경마시행계획 발표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이 2017년 7월 경마시행계획을 발표했다. 7월에는 4주 8일간 64개의 경주가 펼쳐진다. 국내산마 경주 43개, 혼합경주 14개, 국내산·외국산 산지통합경주 7개다. 금요경마는 매주 10개 경주가 시행되고, 제주 중계경주는 모바일 2개 경주 포함 5개 경주가 위성 생중계된다. 일요경마는 매주 6개 경주가 시행되고, 서울 11개 경주가 중계된다. 7월9일에는 총상금 5억원의 부산광역시장배(GⅢ)가, 23일에는 총상금 4억원이 걸린 최고의 암말을 가리는 퀸즈투어 제2관문 KNN배(GⅢ)가 열린다. 7월부터는 금~토요일에 야간경마가, 일요일에는 노을경마가 펼쳐진다. 야간경마의 첫 경주 출발시각은 오후 2시30분, 마지막 경주 출발시각은 오후 9시다. 노을경마의 첫 경주 출발시각은 오전 11시 40분, 마지막 경주 출발시각은 오후 7시다. 7월28·30일에는 혹서기로 경주가 열리지 않는다. 김종건 기자

스포츠토토

46% “KIA, LG 꺾는다”

KIA 4~5점-LG 2~3점 예상 최다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가 30일 열리는 2017시즌 KBO리그 세 경기를 대상으로 한 야구토토 스페셜 53회차 게임의 투표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전체 참가자의 46.25%는 LG-KIA전(1경기)에서 원정팀 KIA의 승리를 내다봤다. 홈팀 LG 승리 예상은 40.92%였고, 나머지 12.81%는 같은 점수대를 점쳤다. 최종 점수대로는 LG 2~3점-KIA 4~5점 예상(5.06%)이 1순위였다.

SK-삼성전(2경기)에선 홈팀 SK 승리 예상(44.75%)이 원정팀 삼성 승리 예상(40.48%)을 앞섰다. 같은 점수대 예상은 14.76%로 집계됐다. 최종 점수대의 경우 SK 4~5점-삼성 2~3점 예상(5.29%)이 가장 많았다. kt-넥센전(3경기)에선 원정팀 넥센 승리 예상(47.43%)이 홈팀 kt 승리 예상(39.25%)을 앞섰다. 같은 점수대 예상은 13.29%. 최종 점수대로는 kt 4~5점-넥센 2~3점 예상(5.12%)이 최다였다. 이번 야구토토 스페셜 53회차는 30일 오후 6시20분 발매 마감된다.

야구토토 스페셜 53회차 투표율 중간집계 (29일 오전 9시 현재)

경기번호	1경기		2경기		3경기	
홈-원정	LG VS KIA		SK VS 삼성		kt VS 넥센	
경기일시	6.30(금) 18:30		6.30(금) 18:30		6.30(금) 18:30	
순위	점수대	투표율	점수대	투표율	점수대	투표율
1	(2~3)-(4~5)	5.06%	(4~5)-(2~3)	5.29%	(4~5)-(2~3)	5.12%
2	(4~5)-(2~3)	4.83%	(4~5)-(6~7)	4.90%	(2~3)-(4~5)	4.67%
3	(4~5)-(8~9)	4.29%	(2~3)-(4~5)	4.46%	(4~5)-(8~9)	4.50%
홈팀 승	40.92%		44.75%		39.25%	
같은 점수대	12.81%		14.76%		13.29%	
홈팀 패	46.25%		40.48%		47.43%	

* 게임방식 : 3경기 6개팀(또는2경기 4개팀) 최종 스코어 맞히기 * 표기방식 : 0~1점, 2~3점, 4~5점, 6~7점, 8~9점, 10+(10점 이상)
* 발매마감 : 2017. 6. 30(금) 18시 20분

케이토토, 5년 연속 WLA 건전화인증 최고등급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대표 손준철)가 6월 16일 세계복권협회(WLA·World Lottery Association)로부터 건전화인증(RGF·Responsible Gaming Framework) 최고등급인 4단계를 재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2011년 3단계 인증서를 획득한 뒤 2013년 9월 최초로 최고등급인 4단계를 인증 받은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은 이로써 5년 연속 가장 높은 건전화등급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015년 6월 체육진흥투표권의 새로운 수탁사업자로 선정된 케이토토는 2년여의 짧은 사업기간에도 불구하고 충실히 건전화활동을 이행한 결과, 국내에선 유일하게 5년 연속 최고수준의 건전화등급 인증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건전화인증 4단계는 아시아 지역에서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케이토토를 포함해 싱가포르 풀스, 홍콩 자키클럽 등 불과 3개 사업자만 인증에 성공할 정도로 높은 권위와 위상을 지닌 등급이다. 획득 과정 또한 매우 까다롭다. 이번 4단계 인증 성공에 따라 케이토토와 공단은 향후 3년간 최고등급의 건전화인증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케이토토 손준철 대표는 “이전 사업자와 비교해 크게 낮아진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재원 활용과 10년 넘게 동일사업에 종사한 전문인력들의 헌신적 노력 덕분에 최고 수준의 건전화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다”며 “케이토토는 더욱 투명하고 건실한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의 스포츠 발전은 물론 건강한 스포츠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토토/프로토) 이외 모든 유사 스포츠베팅 행위는 ‘불법스포츠도박’이며, 이를 이용할 시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 [불법신고] 1899-1119
www.cleansports.or.kr
공식발매사이트 www.betman.co.kr

토토언더오버 25회차 발매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가 토토언더오버 25회차를 발매한다.

토토언더오버는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을 대상으로 5경기 또는 7경기를 선정해 홈팀과 원정팀 각각의 최종득점이 주어진 기준값과 비교해 낮은지, 높은지를 예상하는 배당률 게임이다. 각 팀의 최종득점이 기준값 미만이면 언더(U), 초과면 오버(O)를 선택하면 된다.

이번 25회차는 7월 2일 벌어지는 KBO리그 4경기와 K리그 클래식 3경기 등 총 7경기를 대상으로 한다. KBO리그에선 LG-KIA전(1경기), SK-삼성전(2경기), 한화-두산전(3경기), 롯데-NC전(4경기)이 선정됐다. K리그 클래식에선 전남-제주전(5경기), 서울-전북전(6경기), 상주-포항전(7경기)이 뽑혔다. 7월 2일 오후 5시50분 발매 마감되며, 경기가 모두 종료된 뒤 케이토토 홈페이지(www.ktoto.co.kr) 및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 베트맨(www.betman.co.kr)을 통해 결과가 발표된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